

“일대일로” 경제회랑 건설 추진 동향

KIEP 북경사무소(mspark@kiep.go.kr, Tel: 86-10-8497-2870)

차 례 ●●●

1. 경제회랑 건설 배경
2. 경제회랑 건설 현황
3. 경제회랑 건설 전망

주요 내용 ●●●

■ 최근 중국정부가 일대일로(一帶一路) 연선국가들과 중국을 연결하는 6개 ‘경제회랑(Economic Corridor, 经济走廊)’ 건설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중국은 △ 중국-파키스탄 △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 △ 중국-몽골-러시아 △ 유럽-아시아 △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 △ 중국-중남반도(인도차이나 반도) 지역을 잇는 6개의 경제회랑 건설을 추진 중임.
- 정부 당국은 연선국가간 육로 및 해상 통로 구축이 ‘일대일로’ 계획 추진의 기본 방향으로, 6대 경제회랑 건설을 ‘일대일로’ 계획의 중점 사업으로 언급함.

■ 6대 경제회랑 건설 계획은 주요 경제권의 인프라 통합, 인적 네트워크의 교류, 체제 및 기제의 연동을 기본 원칙으로 추진되며,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등 일부 프로젝트는 이미 가시적 성과를 얻음.

-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조성 사업은 중국 신장(新疆)자치구 카스(喀什)에서 파키스탄 과다르(Gwadar) 항 구간 내 도로와 철도, 석유 및 가스 송유관, 광케이블, 산업단지 등을 건설하는 460억 달러 규모의 장기 프로젝트임.
-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 경제회랑은 중국 윈난(云南)성과 인도 서벵골(West Bengal) 간 주요 경제권을 총길이 약 2,800km의 철도 및 도로 등으로 연결하게 됨.
- 중국-몽골-러시아 경제회랑은 중국의 ‘실크로드 경제벨트’, 러시아의 ‘유라시아 대통로’ 및 몽골의 ‘초원의 길’ 프로젝트간 연계를 통한 통관 및 운송 편리화 실현을 기본 목표로 추진됨.
- 新유라시아 대륙교량 건설 사업은 중국 장쑤(江苏)성 뢰윈강(连云港)과 네덜란드 로테르담(Rotterdam) 간 총길이 10,900km 국제 철도간선 구축 프로젝트로 아시아와 유럽의 30여 국가 및 지역이 포함됨.
-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 경제회랑 사업은 중앙아시아 5개 국가와 서아시아 2개 국가를 거쳐 중국신장과 페르시아만, 지중해연안 및 아라비아 반도를 연결하는 석유 및 가스 수송관 구축 프로젝트임.
- 중국-중남반도 경제회랑 프로젝트는 중국 주장(珠江)삼각주 경제권과 중남반도의 주요 경제권을 연결하는 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 사업임.

■ 경제회랑 건설은 대규모 인프라 수요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건설자금 지원의 핵심 역할은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과 실크로드 기금(丝路基金)이 담당할 것임.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과 실크로드 기금의 자금 지원 외에, 중국의 국가개발은행(国家开发银行)이 ‘일대일로’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임.

1. 경제회랑 건설 배경

■ 최근 중국정부가 일대일로(一帶一路) 연선 국가들과 중국을 연결하는 6개 ‘경제회랑(Economic Corridor, 经济走廊)’ 건설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2015년 3월 2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외교부, 상무부에서 발표한 ‘실크로드 경제벨트 및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공동 건설 계획(推动共建丝绸之路经济带和21世纪海上丝绸之路的愿景与行动)’(이하 ‘계획’)은 ‘경제회랑’ 건설의 기초적 프레임을 제시함.
- ‘계획’에 의하면, 연선국가 간 육로 및 해상 통로 구축은 ‘일대일로’ 계획 추진의 기본 방향으로, 경제회랑 건설이 그 기초를 제공할 것임.
- 2015년 5월 27일 장가오리(张高丽) 중국 부총리는 충칭(重庆)시에서 개최된 ‘유라시아 상호 연결 산업 포럼(亚欧互联互通产业对话会)’ 개막식 축사를 통해 ‘일대일로’ 계획의 핵심 프로젝트로 6대 경제회랑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을 공개함.
- 중국은 △ 중국-파키스탄 △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 △ 중국-몽골-러시아 △ 유럽-아시아 △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 △ 중국-중남반도(인도차이나 반도) 지역을 잇는 6개의 경제회랑 건설을 추진 중임.
- 또한 장 부총리는 7월 21일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된 ‘일대일로 건설 추진 업무회의(一带一路建设推进工作会议)’에서도 6대 경제회랑 건설을 ‘일대일로’계획의 중점 사업으로 언급하며, 우선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함.

■ 최근 시진핑(习近平) 주석은 ‘일대일로’ 연선국가 지도층과 여러 차례 회담을 통해 ‘일대일로’ 관련 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며 경제회랑 건설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음.

- 2015년 4월 20일 파키스탄을 방문, 나와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460억 달러 규모의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구축에 합의함.
- 시 주석은 방문에 앞서 4월 19일 파키스탄 현지 신문에 기고문을 발표,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교차점에 위치한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건설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함.
- 정상회담에서 양국 대표는 경제회랑 건설을 통해 중국 신장(新疆)-파키스탄 과다르항 간 철도와 도로 개통, 에너지, 인프라 건설, 산업 등 분야의 원활한 협력을 견인하는 ‘1+4’ 협력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함.
- 2015년 5월 7~12일까지 카자흐스탄, 러시아 및 벨라루스를 순방하여, ‘일대일로’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를 진행, 유라시아경제연합(EEU, Eurasian Economic Union)¹⁾과의 협력을 통한 유라시

1) 서유럽 국가 중심의 유럽연합(EU)에 대응하는 기구 창설을 위해 러시아가 중심이 된 옛 소련권 국가들의 연합체로

아 대륙교량의 새로운 발전 기회를 모색함.

- 5월 7일 시 주석은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일대일로’ 계획과 카자흐스탄의 ‘광명의 길’²⁾ 경제전략을 접목시켜 인프라 건설, 에너지, 금융 등 분야의 협력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함.
- 5월 8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유라시아경제연합(EEU, Eurasian Economic Union) 건설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关于丝绸之路经济带建设与欧亚经济联盟建设对接合作的联合声明)』을 발표함.
- 5월 10일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벨라루스 공업단지 건설 프로젝트가 ‘일대일로’ 계획 추진에서 갖는 상징적 의의를 평가함.
- 2015년 5월 14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철도, 광업, 지역교류 등 분야별로 약 220억 달러 규모의 협약을 체결함.
- 중국의 ‘일대일로’ 건설에 인도의 협조가 긴요한 상황으로, 양국의 경제협력은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 추진에 지렛대 작용을 할 것으로 전망됨.

2. 경제회랑 건설 현황

■ 중국의 ‘일대일로’가 완성될 경우, 세계 최장·최대 범위의 경제회랑이 구축되며, 일대일로(‘실크로드 경제벨트’+ ‘21세기 해상실크로드’)는 다섯 노선으로 분류될 수 있음.

- 먼저 ‘실크로드 경제벨트’는 북방노선(중국-중앙아시아-러시아-유럽), 중앙노선(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페르시아만-지중해), 남방노선(중국-동남아-남아시아-인도양)으로 분류됨.
- 북방노선은 아시아와 유럽 간 연결을 핵심 목표로 베이징-러시아-독일-북유럽 등을 연결하는 유라시아 대륙교량을 중심으로 건설됨.
- 석유 및 천연가스 수송관로 설치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중앙노선은 베이징-시안(西安)-우루무치(乌鲁木齐)-아프가니스탄-카자흐스탄-헝가리-파리 등 지역을 연결함.
- 베이징-난장(南疆)-파키스탄-이란-이라크-터키-이탈리아-스페인 등 지역이 포함되는 남방노선은 국가간 고속도로 개통을 중점적으로 추진함.
- ‘21세기 해상실크로드’는 △ 중국-남중국해-인도양-유럽 △ 중국-남중국해-남태평양 노선으로 분류됨.

2015년 초부터 정식 가동되었으며, 회원국으로는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이 있음.
2) 2014년 11월부터 카자흐스탄 정부가 추진 중인 180억 달러 규모의 기초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그림 1. '일대일로' 노선도



자료: 「한국 쪽 뻗은 '일대일로' 노선 실속 없는 AIIB 참가」, 『주간조선』 (검색일: 2015. 7. 28).

■ 6대 경제회랑 건설 계획은 주요 경제권의 인프라 통합, 인적 네트워크의 교류, 체제 및 기제의 연동을 기본 원칙으로 추진되며,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등 일부 프로젝트는 이미 가시적 성과를 얻음.

-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조성 사업은 중국 신장(新疆)자치구 카스(喀什)에서 파키스탄 과다르(Gwadar)항을 잇는 프로젝트로,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은 2013년 5월 리커창(李克強) 중국 총리가 파키스탄 방문 당시 제기한 구상으로, 2015년 4월 8일 파키스탄의 수도인 이슬라마바드에서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같은 달 20일 시진핑 주석이 파키스탄을 방문해 약 30개 이상의 경제회랑 관련 MOU를 체결함.
- 동 회랑 사업은 2020년까지 카스-과다르항 간 총길이 3000km 구간 내 도로와 철도, 석유 및 가스 송유관, 광케이블, 산업단지 등을 건설하는 460억 달러 규모의 장기 프로젝트임.
- 페르시아만 입구의 호르무즈 해협에 근접한 과다르항은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가 통과하는 중남아시아와 중동 간 전략적 요충지로, 경제회랑이 조성될 경우 중국은 중동산 원유를 과다르항에서 환적하여 운송함으로써 현 12,000km의 운송거리를 2,395km로 단축할 수 있음.

그림 2.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노선도



자료: 「中巴经济走廊」, 『百度百科』 (검색일: 2015. 7. 29).

-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 경제회랑은 지역 내 투자무역, 공업, 농업, 교통, 에너지, 서비스 등 분야의 산업 협력 확대를 핵심 목표로 중국 윈난(云南)성과 인도 서벵골(West Bengal) 간 주요 경제권을 총길이 약 2,800km의 철도 및 도로 등으로 연결하는 프로젝트임.
- 동 프로젝트는 2013년 5월 리커창 총리와 인도 모디 총리의 회견 당시 처음 제기되어 방글라데시 및 미얀마의 적극적인 동의를 얻었으며, 2014년 9월 시진핑 주석의 인도 방문과 2015년 5월 모디 총리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음.
- 4개 국가는 경제회랑 건설을 통해 2040년 내 상호연계 강화, 빈곤문제 해결 등 목표를 달성하고, 방글라데시 다카, 중국 쿤밍, 인도 콜카타, 미얀마 만달레이(Mandalay) 등 주요 지역에 국제 금융 및 물류 센터를 건설하기로 합의함.
- 현재 경제회랑 조성을 위해 미얀마의 칼레와(kalewa)와 몽유와(Monywa) 간 약 200km에 달하는 지역에 전천후 도로 구축을 준비 중이며, 인도 아삼(Assam) 주 실차르(Silchar)와 마니푸르(Manipur) 주 임팔(Imphal) 간 도로를 개발 중임.

그림 3.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 경제회랑 노선도



자료: 「中印緬孟“把路走通」, 『支点』(검색일: 2015. 7. 29).

- 중국-몽골-러시아 경제회랑은 중국의 ‘실크로드 경제벨트’, 러시아의 ‘유라시아 대통로’ 및 몽골의 ‘초원의 길’ 프로젝트간 연계를 통한 통관 및 운송 편리화 실현을 기본 목표로 추진됨.
- 동 회랑 구축사업은 2014년 9월 11일 첫 번째로 개최된 중국-몽골-러시아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이며, 2015년 1월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 국제 전략사업으로 격상되어 현재 건설계획안을 작성 중임.
- 국무원이 설계 중인 계획에 의하면, 동 회랑은 △ 중국 화북(华北)지역 징진지(京津冀)-후허하오터(呼和浩特)-몽골-러시아 △ 중국 동북(东北)지역 다리엔(大连), 선양(沈阳), 창춘(长春), 하얼빈(哈尔滨)-만저우리(滿洲里)-러시아 치타(Chita) 등 두 노선으로 조성됨.
- 2015년 7월 9일 중국-몽골-러시아 정상은 2차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몽골-러시아 경제회랑 건설안을 포함한 3국 협력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중국-몽골-러시아 경제회랑 건설 계획 요강 편제에 관한 양해각서(关于编制建设中俄蒙经济走廊规划纲要的谅解备忘录)」를 체결함.

그림 4. 중국-몽골-러시아 경제회랑 노선도(정진지발)



자료: 『新亚欧大陆桥』, 『百度百科』 (검색일: 2015. 7. 29).

- 新유라시아 대륙교량 건설 사업은 중국 장쑤(江苏)성 련윈강(连云港)과 네덜란드 로테르담 (Rotterdam) 간 총길이 10,900km 국제 철도간선 구축 프로젝트로, 아시아와 유럽의 30여 국가 및 지역이 포함됨.
- 2015년 2월 25일 중국은 련윈강에서 신장위구르(维吾尔)자치구를 거쳐 카자흐스탄 알마티(Almaty)로 연결되는 ‘렌신야(连新亚)’ 철도를 개통, 新유라시아 대륙교량 건설의 준비 작업에 착수함.
- 2015년 3월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新유라시아 대륙교량 건설 프로젝트를 ‘일대일로’의 중점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명시함.
- 중국의 룡하이(铁路)철도와 란신(兰新)철도가 노선에 포함되며, 장쑤(江苏), 안후이(安徽), 허난(河南), 산시(陕西), 간쑤(甘肃), 칭하이(青海), 신장(新疆) 등 7개 성의 430여 현(县), 시(市)를 경유, 중국-러시아 국경지역의 아라산커우(阿拉山口)를 거쳐 국외로 연결됨.
- 동 대륙교량이 완공될 경우 이동거리는 인도양과 수에즈운하를 경유하는 해상경로 대비 10,000km, 기존 시베리아 횡단철도 대비 3,000km 단축되며, 운송비용도 20% 절감되고, 소요시간도 50% 단축됨.

그림 5. 유라시아 대륙교량 노선도



자료: 『新亚欧大陆桥』, 『百度百科』 (검색일: 2015. 7. 29).

-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 경제회랑 사업은 중앙아시아 5개 국가와 서아시아 2개 국가를 거쳐 중국

신장과 페르시아만, 지중해연안 및 아라비아 반도를 연결하는 석유 및 가스 수송관 구축 프로젝트임.

- 중국은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및 키르기스스탄과 ‘실크로드 경제벨트’ 건설협력 관련 양자간 협의를 체결, 각국의 경제발전 전략과 ‘일대일로’ 계획 간 연계를 통한 공동번영 방안을 모색함.
-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주요 경제권과 서아시아의 이란, 터키 등 국가를 경유하여 중국으로 통하는 에너지 회랑을 완성할 계획임.
- 현재 가동 중인 중국-중앙아시아 간 천연가스 수송관 A,B 라인은 각각 총길이 1,830km의 세계 최장 천연가스 수송관으로,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국경지역에서 시작되어 우즈베키스탄 중부 및 카자흐스탄 남부를 거쳐 중국 아라산커우로 연결됨.
- 우즈베키스탄 천연가스 수입을 주목적으로 건설될 C 라인은 A, B라인과 동일한 노선을 거쳐 중국 신장 휘얼귀스 항구로 연결되며, A, B, C 세 라인은 각각 연간 550억m³의 천연가스를 수송함.
- 최근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국경지역부터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을 거쳐 중국 신장우차현(乌恰县)까지 약 1,000km를 잇는 D라인을 2016년 내 가동을 목표로 건설 중이며, 동 라인의 연간 수송량은 300억m³로 설계됨.

그림 6. 중국-중앙아시아 천연가스 수송관 노선도



자료: 『“一帶一路”上的天然氣生意』, 『北极星電力網』, 검색일: 2015. 8. 1).

- 중국-중남반도 경제회랑 프로젝트는 중국 주장(珠江)삼각주 경제권과 중남반도의 주요 경제권을 연결하는 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며, 중국이 제기한 ‘중국-ASEAN 운명공동체’³⁾ 구상을 기반으로 추진함.
- 동 회랑은 중국 주장삼각주 경제지역 내 난광(南廣)고속도로와 구이광(桂廣)고속도로⁴⁾부터 난닝(南寧), 베트남 하노이(Hanoi), 태국 방콕(Bangkok),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 등을 거쳐 싱가포르로 연결됨.

3) 시진핑 주석이 2013년 10월 2~5일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국빈방문 당시 제기한 구상으로,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 간 협력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공동번영 방안 모색을 목표로 함.

4) 난광고속도로: 쓰촨(四川)성 난충(南充)시-광안(廣安)시
구이광고속도로: 구이양(貴陽)-두원(都勻)-구이린(桂林)-허저우(賀州)-자오칭(肇慶)-포산(佛山)-광저우(廣州).

- 연선국가들간 물류, 자금, 정보 및 인적자원 교류 확대를 통해 역내 지역별 우위의 상호보완, 분업구조의 재편, 지역간 협력 개발 등을 시행하고자 함.
- 광시(广西) 지역은 지리적 인접성을 이용, ASEAN 국가들을 대상으로 정책, 도로, 물류, 통화 및 인적자원 등 다섯 분야의 개방을 추진하는 ‘5통(五通)’ 전략을 시행함으로써 ‘일대일로’ 건설의 주요 기반으로 부상함.

그림 7. 중국-중남반도 경제회랑 노선도



자료: 『中新经济走廊是21世纪海上丝路的重要组成部分』, 『中国日报网』(검색일: 2015. 8. 1).

표 1. 6대 경제회랑 주요 노선

구분	포함 국가	주요 노선	중점 조성 분야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중국, 파키스탄	중국 신장카스-홍치라푸-파키스탄 소스트-쿤자람-이슬라마바드-라호르-카라치-파다르항	철도 및 도로, 석유 및 가스 수송관, 광 케이블, 산업단지 등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 경제회랑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미얀마	방글라데시 다카-중국 쿤밍-인도 콜카타-미얀마 만달레이	철도 및 도로
중국-몽골-러시아 경제회랑	중국, 몽골, 러시아	· 중국 징진지-후허하오터-몽골 울란바토르-러시아 울란우데-모스크바 · 중국 하얼빈-창춘-선양-다리엔-만저우리-러시아 치타 ※ 양방향 구상 중	고속운송통로
新유라시아 대륙교량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란, 터키, 우크라이나, 폴란드, 독일, 네덜란드 등	중국 윈강-정저우-시안-란저우-우루무치-카자흐스탄 악토가이-아리스-러시아 스몰렌스카야-브란스크-벨라루스 브레스트-폴란드 바르샤바-독일 베를린-네덜란드 로테르담	국제 철도간선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 경제회랑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란, 터키 등	· 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 중부-카자흐스탄 남부-중국 아라산커우(기가동 노선) · 투르크메니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중국 우차(건설 중 노선)	석유 및 가스 수송관
중국-중남반도 경제회랑	중국,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중국 난닝-베트남 하노이-빈-태국 콘깬-방콕-송클라-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싱가포르	철도 및 도로

자료: 중국 언론 자료 종합.

그림 8. 6대 경제회랑 배치도



자료: 『中蒙俄经济走廊黑龙江陆海丝绸之路经济带建设情况』, 黑龙江省发展改革委(검색일: 2015. 7. 28).

3. 경제회랑 건설 전망

- ‘일대일로’ 경제회랑 구축은 대규모 인프라 수요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건설자금의 핵심 역할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이하 'AIIB')’과 실크로드 기금(丝路基金)이 담당할 것임.
- 2015년 3월 발표된 「계획」은 자금의 원활한 유동이 ‘일대일로’ 건설의 필수 원동력 중 하나이며, AIIB가 그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명시함.
 - 최근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일대일로’ 관련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규모는 1.04조 위안이며, 평균 2~4년이 소요되는 인프라 건설 주기를 감안할 때, 2015년 한 해 동안 4,000억 위안에 달하는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2015년 5월 ‘유라시아 상호 연결 산업 포럼’에서 장가오리 부총리는 AIIB와 실크로드 기금의 지원 외에, 중국의 국가개발은행(国家开发银行)이 ‘일대일로’ 관련 프로젝트에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연설함.
 - 국가개발은행 리지핑(李吉平) 부행장은 인터뷰를 통해 동 은행이 ‘일대일로’ 연선의 60여 국가에서 진행될 900건 이상의 프로젝트에 자금협력을 준비 중이며, 약 8,9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투입될 것이라고 밝힘.
 - 리 부행장에 의하면 국가개발은행의 우선 지원 분야는 인프라 건설 분야로, 설비 수출, 아웃소싱, 투자 등을 통한 중국기업의 연선국가 인프라 건설 참여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이며, 중국-동아시아 및 중국-러시아 등 국가간 자원 협력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할 계획임.
- 한편 일각에서는 연선국가의 경제적 수준과 동 계획에 필요한 자금량을 감안해 기타 루트를 통한 자금 확보 방안 고려의 필요성을 제기함.
 - 민관협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방식의 도입은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으며, 전방위적 투자 및 용자를 진행함으로써 정부·기업·개인의 자금유입 방식에 프레임을 제공할 수 있음.

■ ‘일대일로’의 6대 경제회랑 건설로 많은 국가들이 경제성장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나, 연선국가들간 종교·문화·지역, 안보상황 등의 차이로 인해 각종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을 것임.

- 중국인민대학 국제사무연구소 왕이웨이(王义桅) 소장은 ‘일대일로’ 구상은 대규모 국제협력 프로젝트로 관련 국가 및 기업들에 △ 전방위적 개방, △ 주변외교 △ 지역협력 등에 있어 유리한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세계 공동번영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함.
- 경제회랑의 조성은 역내 인프라 구축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것이며, 철도 및 도로 건설로 대륙, 국가 및 지역간 거리를 단축함으로써 상호 소통과 무역을 더욱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중국 고속철 관련 산업의 발전 및 해외진출을 가속화할 수 있음.
- 반면, 왕소장은 경제회랑 건설 과정에서 추진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기초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로, 광범위한 국가 및 지역을 포괄하고 있어 경제, 지연(地緣), 안보, 법률 등과 관련된 각종 리스크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함.
- 인프라 구축은 투자 주기가 길고 대규모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업인 만큼, 투자 유치 및 운영과정에 어려움 겪을 수 있음.
- 자금 확보가 경제회랑 건설의 핵심 조건이나, 일부 국가를 제외한 아시아 연선국가들 대부분은 자금난을 겪고 있으며, 유럽 일부 국가의 채무율과 적자율은 각각 60%, 3%를 초과하는 등 경제위기에 처해 있음.
- 지연적(地緣的)으로 중동 및 중앙아시아, 동남아 등 지역 내 잔존하는 종교, 자원, 역사, 외부간섭, 민족 등과 관련된 문제들이 지역 협력에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함에 따라 경제회랑 건설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일부 지역간 진행 중인 무장충돌로 인해 경제회랑 건설 과정에 있어 테러, 생태오염, 정보 및 자원 유출 등의 비전통 위협에 직면할 수 있음.
- 경제회랑 조성 프로젝트는 약 60여 국가 및 지역 간 전략적 제휴, 교통 인프라 연결, 국제 무역, 에너지 협력, 금융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추진되는데, 대부분 중국과 상이한 법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회랑 건설 중 법률정보 비대칭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

■ 6대 경제회랑 건설을 통해 동북·서북·서남·동남 지역의 문호가 개방되면, 연선국가들간 상호소통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 청화대학교 당대국제관계연구원 부교수 자오킨(赵可金)은 중국-몽골-러시아 경제회랑의 건설은 중국 동북 지역과 환발해(环渤海)경제권의 융합 외에도 중국 동북 개방의 필수 조건이며, 건설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환발해경제권과 몽골, 러시아 경제 간 상호 소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함.
- 하얼빈(哈尔滨), 창춘, 선양, 다롄 등 동북 경제벨트, 후바오어위(呼包鄂榆) 도시군⁵⁾ 및 징진지 지역과 환발해경제권 간 연결을 통해 중국-몽골-러시아 경제벨트 건설의 기반을 다질 수 있음.

5) 후허하오터(呼和浩特), 바오터우(包头), 어얼뒤쓰(鄂尔多斯), 위린(榆林)

- 만저우리와 치타, 헤이허(黑河)와 블라고베렌스크(Blagoveshchensk), 쑤이펀허(绥芬河)와 블라디보스톡, 얼론허오터(二连浩特)와 울란바토르 등 동북 지역 도시군과 국외 변방 도시들 간 경제통합을 추진함으로써 공동 성장이 촉진될 수 있음.
- 중국 신장(新疆)은 新유라시아 대륙교량,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 경제회랑의 교차지역으로, 신장의 중심도시인 우루무치의 주도적 역할은 세 회랑 건설의 핵심 기반이 될 것임.
- 서북 개방을 위해서는 신장에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국가들과 연결되는 통로 및 무역상거래 허브, 중점 산업과 인적교류 거점이 필요함.
- 자오교수는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 경제회랑 범위 내의 중국 윈난 지역을 서남 개방의 중심지로 개발하고, 광시 지역 내 아세안 국가들로 향하는 국제통로를 건설함으로써 동남 개방을 촉진해야한다고 강조함.
- 윈난성의 현황을 감안할 때, 동 지역 한 곳으로만 경제회랑 건설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중국 서남 지역의 구이저우성, 쓰촨성 및 충칭(重庆)시의 통합과 주장삼각주경제권의 연계를 통해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 경제회랑 건설에 원동력을 제공할 수 있음.
- 광시를 주장삼각주경제권으로 편입하여 윈난, 구이저우, 광둥, 하이난과의 협력을 추진, 중국-중남반도 경제회랑 건설 과정에서 광시의 주도적 역할을 제고할 수 있음.
- 중국-아세안 박람회를 플랫폼으로 난징(南京), 친저우(钦州), 팡청강(防城港) 등 광시성 내 도시들과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연선국가의 도시들간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지역경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음.

<참고자료>

- 『北极星电力网』. 2015. 『“一带一路”上的天然气生意』. (3月26日)
- 『国际金融报』. 2015. 『“一带一路”六大经济走廊有多长 面有多广』. (6月2日)
- 『黑龙江省发展改革委』. 2015. 『“中蒙俄经济走廊”黑龙江陆海丝绸之路经济带建设情况』. (4月16日)
- 『能源网』. 2015. 『“一带一路”-中亚天然气管道 打造能源新丝路』. (4月3日)
- 『腾讯财经』. 2015. 『万亿美元投资 打造一带一路6大经济走廊』. (5月28日)
- 『腾讯财经』. 2015. 『中国正规划一带一路6大经济走廊』. (5月28日)
- 『新华社』. 2014. 『共同打造中蒙俄经济走廊』. (9月12日)
- 『新华网』. 2015. 『习近平：推动构建中俄蒙经济走廊』. (7月10日)
- 『中财网』. 2015. 『“一带一路”划定重点 打造六大经济走廊』. (7月24日)
- 『中国产经新闻报』. 2015. 『六大经济走廊分工布局 “一带一路”资金保障充分开放』. (6月1日)
- 『中国网』. 2015. 『赵可金：“一带一路”的六条经济走廊』. (6月3日)
- 『中国日报网』. 2014. 『中新经济走廊是21世纪海上丝路的重要组成部分』. (9月15日)

『中国-东盟传媒网』. 2015. 『广西建“一带一路”大通道 打“五通”牌凸显枢纽作用』. (3月12日)

『中国证券网』. 2015. 『新亚欧大陆桥是今年“一带一路”建设重点』. (3月31日)

『中国证券网』. 2015. 『“一带一路”进入新阶段 “连新亚”班列今日开通』. (2月25日)

자료 정리: 인민대학 경제학원 박사과정 조수영(swintiamo@naver.com)